

- 본문 : 요한복음 14장 21~24절
- 제목 : “사랑에 이끌린 인생을 산 제자”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यो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यो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18개월 정도라고 한다. 약 1년 반 정도였다. 우리 생애에 1년 반만 전적으로 투자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제대로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1년 반 동안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훈련의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을 거쳤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다듬어지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도 별것 아니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아직도 비참한 고백을 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요21:3). 나름대로 성경공부도 했고, 기초와 고급의 훈련도 받은 우리 아닌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준비 되고 잘 다듬어진 제자인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 제자로서 땀을 흘리고 있는 삶이 있는가? 당신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인가? 한 사람씩 나의 나 된 것을 돌아보고 말씀의 우물을 함께 마시도록 하자.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의 제자 “다대오 유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하나씩 말해보라.
2. “가룟 유다와 혼동되지 않는 제자”로 살아간 ‘다대오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래에 제시된 성경구절을 묵상해보라.
* 요한복음 14:22
* 요한복음 14:23
3. 제자 ‘다대오 유다’가 어떤 제자였는가를 세 가지 인생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이타적인 동기로 산 인생 ② 이름대로 산 긍정적인 인생 ③ 주님 사랑에 이끌린 인생.
예수님의 제자 ‘다대오’와 예수님의 제자인 당신과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다대오 유다’의 삶을 보면서 내 인생에 꼭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돼! 내 말에 순종하면 돼!” 말씀하셨을 때 ‘다대오 유다’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그의 삶을 평생 전도와 선교로 헌신했다. 다대오 유다의 선교에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산 제자의 삶을 볼 때 당신은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본 적이 있는가? 지금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사랑에 이끌린 제자로서 자신을 돌아볼 때 당신은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어보라.

· 말씀기도제목

1.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돼! 내 말에 순종하면 돼!” 말씀하실 때, “주님의 사랑에 이끌린 제자”로 살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2. 제8차 특새감사헌금을 장안구 “지역사회 희망자금”으로 나눌 때, 10가정에서부터 나눔과 섬김의 승법번식이 일어나 그들이 예수님을 희망자금 삼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은혜의 선택,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타적인 동기”로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돌보는 제자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